

여가만족척도(LSS-short form)의 타당도 검증과 적용

Cross-cultural Validation Test and Application of LSS-short Form

김미량*, 이연주**, 황선환***
 서울대학교*, 한림대학교**, 서울시립대학교***

Mi-Lyang Kim(leisuremania@gmail.com)*, Yeon-Ju Lee(sport-freeman@hanmail.net)** ,
 Sunhwan Hwang(shhwang@uos.ac.kr)***

요약

이 연구는 Beard와 Ragheb[9]에 의해 개발되고 국내에서는 이종길[7]이 사용한 여가만족척도의 번안적 절성에 그에 따른 타당도를 검증하고 적용성을 검토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연구를 위해 먼저 여가만족척도의 문항과 각 요인의 조작적 정의를 번안 및 역번안을 수행하고 여가학 전문가들이 내용을 검토하였다. 타당도 검증을 위해 설문조사하여 총 515명(대학생 290명, 일반인 225명)의 자료를 분석에 이용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SPSS 14.0과 AMOS 5.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문항분석, 상관분석, 탐색적 요인분석, 신뢰도분석, 다중회귀분석, 그리고 확인적 요인분석을 수행하여 여가만족척도의 신뢰도와 타당도를 검증하였다. 연구결과 기존에 국내에서 사용되던 여가만족척도의 요인의 명칭(심리적, 교육적, 사회적, 신체적, 심미적, 긴장이완)과 문항을 수정하고 조작적 정의를 제시하였다. 또한 자료분석 결과 6개요인, 24개 문항으로 구성된 여가만족척도의 신뢰도와 타당도는 매우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또한 여가만족과 삶의 질과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 심리적요인과 긴장이완요인에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재 번역되고 타당도가 검증된 여가만족 척도는 향후 국내연구에서 유용한 도구로 사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 중심어 : | 여가만족척도 | 여가만족 | 타당도 | 삶의 질 |

Abstract

The purpose of the current study was to examine the validity of the Leisure Satisfaction Scale(LSS) and confirm the relations between the LSS and subjective well-being. The LSS developed by Beard and Ragheb[9] has been used for about 20 years without the examination of the validity since it was utilized in Lee[2]'s study in Korea. First, all items of the original LSS and the operational definition of factors were translated and then inversely translated, and reviewed by experts in leisure studies. A total of 515 respondents participated in the study. To achieve the goals of this study, item-total correlation, correlation analysis, exploratory factor analysis, reliability analysis, multiple regression and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were conducted by SPSS 14.0 and AMOS 5.0 programs. Main findings are as follows: First, the factor names(psychological, educational, social, physical, esthetic, and relaxation) and items were modified. Second, modified operational definition of factors were presented. The reliability and validity of the LSS consisted of 24 items and five factors were very high. Psychological and relaxation factors of LSS affected subjective well-being positively. The new LSS would be useful for the future studies associated with leisure satisfaction.

■ keyword : | Leisure Satisfaction Scale | Leisure Satisfaction | Validity | Quality of Life |

I. 서론

개인이 여가활동을 통해 얻는 만족감은 많은 연구를 통해 그들에게 삶의 만족을 결정짓는 중요한 선행변인으로 다루어져왔다. 이러한 연구가 가능한 것은 개인의 여가참여에 따른 만족감을 측정할 수 있는 도구인 ‘여가만족척도’가 있기 때문이다.

여가만족척도(LSS: leisure satisfaction scale)는 Beard와 Ragheb이 1980년 Journal of leisure Research에 척도를 최초로 개발하여 발표 하였고 이를 통해 여가활동에 참가하는 사람들의 여가참여에 대한 만족도를 계량적으로 측정하기 시작하였다. 이들은 여가만족에 대한 다양한 연구[12-14][16-18][19]를 이론적 기반으로 하여 광범위한 이론적 탐구와 통계적 검증을 통해 척도를 개발하였다.

여가만족은 여가활동의 선택과 참가의 결과로 개인이 형성하거나 획득하는 긍정적인 인식 또는 감정을 의미한다[9]. 즉 일반적인 여가경험이나 상황에 대하여 현재 즐거워하거나 만족하는 정도를 의미하며, 이러한 여가의 만족스러운 감정은 개인의 의식적, 무의식적 욕구가 충족됨으로써 발생한다. 결국 여가만족은 여가활동의 선택 및 참여를 규정하고 그 활동의 지속과 흥미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로서 참가자들에게 만족스러운 여가활동을 가능케 한다.

이러한 여가만족의 계량적인 측정이 중요한 이유는 여가만족에 관한 이론 및 지식이 이에 기여하는 활동과 행동 및 서비스를 밝혀줌으로써 궁극적으로 인간으로 하여금 만족을 성취할 수 있게 해주기 때문이다. 나아가 연구의 측면에서는 여가만족과 기타 관련 변인간의 관계를 밝힘으로써 삶의 전체적인 체계에 적응하는 과학적인 방법을 발견할 수 있도록 하기 때문이다.

국내에서는 이종길[7]이 사회체육활동과 생활만족의 관계를 밝히는 연구에서 최초로 사용되면서 체육학연구에서 여가만족척도가 사용되기 시작했고 그 이후 국내연구의 다양한 분야에서 여가만족척도를 꾸준히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이종길[7]의 연구에서는 여가만족 척도에 대한 번안과정과 타당도검증은 제대로 이루어져 있지 않았다.

외국에서 개발된 척도를 국내연구에서 적용하는 것은 매우 신중한 작업이며 다양한 방법을 적용하여 타당도와 신뢰도가 확보되어야 한다[5]. 그러나 여가만족척도는 약 20여년에 걸쳐 국내의 수많은 연구에서 사용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척도번안의 적절성과 그에 따른 타당도를 검증한 바가 없다.

이에 대해 김병준[2]은 현재 사용되고 있는 여가만족척도가 최초번역본 개발에 대한 타당도 검증 없이 후속 연구에서 맹목적이고 반복적으로 척도를 재사용하고 있는 점을 지적하였고, 김영재[3][4]는 국내에서 수행되고 있는 여가만족 연구에서 타당도가 검증되지 않은 척도가 지속적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문제를 지적하고 대학생을 위한 한국형 여가만족 척도개발을 시도한 바 있다. 또한 김병준[2]은 영어권에서 개발된 검사 도구를 우리 문화에서 사용할 때에는 번역뿐만 아니라 번역본의 타당도에 대한 세밀한 검사와 점검이 요구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번역에만 의존했거나, 번역과정과 타당도의 점검 절차를 소홀히 했던 것이 우리연구의 현실이었다고 지적한 바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제까지 번안의 적절성과 그에 따른 타당도 검증을 하지 않고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는 여가만족척도의 타당도를 확보하고 적용성을 검토하는데 연구의 목적이 있다.

여가만족은 삶의 질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Ragheb과 Griffith[28]는 여가만족도가 높을수록 삶의 질적 수준이 높다는 연구결과를 보고하였고, 임변장과 정영린[29]도 여가만족이 개인의 삶의 질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변인이라 주장하고 있다. 그 후에도 박래영과 김백운[30]은 댄스스포츠 참여 노인여성의 여가만족이 삶의 질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한 바 있다. 이러한 이유로 여가만족척도의 적용을 위하여 삶의 질과의 관계를 밝히고자 한다.

여가만족척도의 타당도 확보는 척도를 재번안하고 그에 따른 조작적 정의의 검토 및 제시, 그리고 통계적 타당도와 신뢰도 검증을 포함한다. 이러한 연구는 향후 국내연구에서 여가만족척도를 사용하는 후속 연구자들에게 보다 타당한 연구를 수행할 수 있도록 기여할 것이다.

II. 연구방법

1. 연구절차

여가만족 척도의 변안적절성과 타당성 검증을 위해 여가만족척도의 변안과 역변안, 전문가집단의 내용검토, 조작적 정의 및 요인명칭의 재검토, 설문지 완성 및 설문조사, 통계분석 등의 절차로 연구를 진행했고 척도의 적용을 검증하기 위해 삶의 질에 대한 영향력을 분석하였으며 그 절차는 [그림 1]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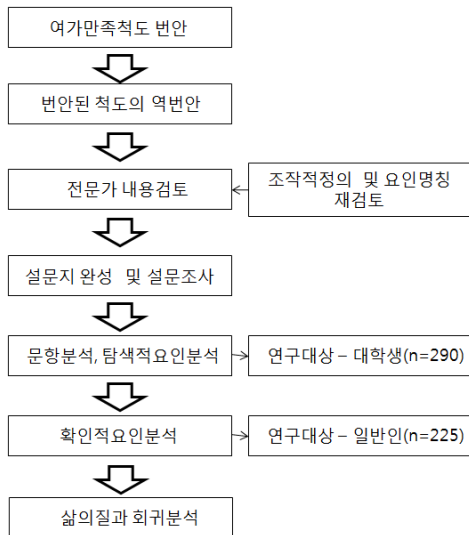


그림 1. 연구의 절차

2. 척도의 변안과 내용타당도 검토

본 연구에서는 Beard와 Ragheb[9]의 설문을 변안 및 역변안하는 과정을 거쳤다. 변안과 역변안은 여가학전문가에게 의뢰하여 번역하였다. 이러한 변안은 설문문항과 요인뿐만 아니라 연구에 제시된 조작적 정의를 동시에 고려하여 변안하였다. 변안 후 여가학전문가집단을 구성하여 내용검토를 수행하였다. 내용검토의 주요 내용은 변안의 타당성과 조작적 정의에 입각한 문항내용의 적절성이었다.

3. 연구대상

본 연구에서는 변안된 여가만족척도의 타당성 및 삶

의 질과의 관계를 검증하기 위해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대상은 대학생 300명과 일반인 300명을 유의표집(purposive sampling)하였는데 표집된 600명 중 설문지의 응답이 50%이상 누락되거나 역문항의 답변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등의 불성실한 자료를 제외하고 최종 분석에 사용된 자료는 515명이었다.

구체적인 연구대상자의 구성은 대학생의 경우 남학생이 187명(64.5%), 여학생이 103명(35.5%)이었다. 일반인은 남자가 130명(57.8%), 여자가 95명(42.2%)이었고 연령대는 20대가 74명(32.9%), 30대가 79명(35.1%), 40대가 39명(17.3%), 50대 이상이 33명(14.7%)이었다.

또한 Beard와 Ragheb[9]이 여가만족척도를 개발할 때의 연구대상은 학생(student), 전문직(professional, technical), 기술직(skilled employees), 비정규직(part-time employees), 은퇴자(retired individuals)등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도 가장 유사한 집단을 선정하기 위해 노력했다. 본 연구에서도 각 직업군의 분포가 20-30%수준을 유지하도록 하였다.

4. 조사도구

본 연구의 조사도구는 새롭게 변안과 역변안 과정을 거쳐 전문가집단이 내용 검토한 여가만족척도이다. 척도는 Beard와 Ragheb[9]이 개발한 이후 전세계의 많은 연구 분야에서 사용되어 왔다. 국내에서도 이종길[7]의 연구에서 사용한 후 국내 연구에서 지속적으로 이용되고 있으나 변안의 적절성과 그에 따른 타당성을 검증한 바 없다. 구체적인 타당도 및 신뢰도 검증 내용은 결과 부분에 기술되어 있다. 또한 여가만족척도의 적용을 검증하기 위해 사용된 삶의 질(subjective well-being)척도는 Diener et al[26]의 SWLS (Satisfaction with Life Scale)으로 국내에서는 구계선[27]이 사용한 바 있다. 측정은 7점 리커트척도로 이루어 졌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삶의 질이 높다. 설문문항 중 부정적인 문항은 ‘(R)’로 표시하였으며 역변환 후 통계처리 하였다. 삶의 질 척도의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직교회전 Varimax 방식으로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표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삶의 질 척도는 7문항 1개의 요인이 추출되었고, 이 요인의 전체 변인의 58.2%를 설명하는 것으로 나

타나 구인 타당도(construct validity)에 문제가 없음이 확인되었다. 척도의 신뢰도는 Cronbach's α 값으로 확인한 결과 .872로 비교적 높은 신뢰도를 보였다.

표 1. 삶의 질 척도의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

문항	삶의 질
	요인1
만약 내 삶을 다시 살 수 있더라도, 나는 거의 아무 것도 바꾸지 않을 것이다.	.862
나는 대부분의 측면에서 내가 꿈꾸던 삶을 살고 있다.	.847
전반적으로, 나는 행복한 삶을 살고 있다.	.781
나는 내 삶에 대해 만족한다.	.753
나는 좋은 조건에서 살고 있다.	.738
전반적으로 나의 삶은 불행하다.(R)	.715
지금까지 나는 삶에서 내가 원하는 중요한 것들을 소유해 왔다.	.620
고유값	4.077
분산(%)	58.240
누적(%)	58.240
Cronbach's α	.872

표 2. 여가만족척도의 변안문항

요인	번호	문항내용
Psychological	문항1	나의 여가활동은 나에게 매우 흥미롭다.
	문항2	나의 여가활동은 나에게 자신감을 준다.
	문항3	나의 여가활동은 나에게 성취감을 준다.
	문항4	나의 여가활동에서 나는 다양한 기술과 능력을 이용한다.
Educational	문항5	나의 여가활동은 내 주변상황에 대한 지식을 증가시킨다.
	문항6	나의 여가활동은 새로운 것을 시도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문항7	나의 여가활동은 나 자신에 대해 배울 수 있도록 도와준다.
	문항8	나의 여가활동은 다른 사람에 대해 배울 수 있도록 도와준다.
Social	문항9	나는 여가활동을 통해 다른 사람들과 사회적 교류를 한다.
	문항10	나의 여가활동은 다른 사람들과 친밀한 관계로 발전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문항11	나의 여가활동을 통해 만난 사람들은 친절하다.
	문항12	나는 자유시간에, 여가활동에 깊게 참여하는 것을 즐기는 사람들과 어울린다.
Relaxation	문항13	나의 여가활동은 긴장을 풀어준다.
	문항14	나의 여가활동은 스트레스 해소를 도와준다.
	문항15	나의 여가활동은 정서적 행복에 유익하다.
	문항16	나는 그저 이 여가활동을 하는 것이 좋아서, 이 여가활동에 참여한다.
Physiological	문항17	나의 여가활동은 신체적인 도전이다.
	문항18	내가 하는 여가활동은 나의 체력을 향상시킨다.
	문항19	내가 하고 있는 여가활동은 나를 신체적으로 회복시킨다.
	문항20	나의 여가활동은 내 건강을 지키는 것을 도와준다.
Aesthetic	문항21	나의 여가활동 참여지역이나 장소는 쾌적하고 깨끗하다.
	문항22	나의 여가활동 참여지역이나 장소는 흥미롭다.
	문항23	나의 여가활동 참여지역이나 장소는 아름답다.
	문항24	나의 여가활동 참여지역이나 장소는 디자인이 잘 되어 있다.

5. 자료처리 방법

설문지의 신뢰도와 타당도를 검증하기 위해 SPSS 14.0과 Amos 5.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자료를 분석하였다. 구체적으로 평균, 표준편차, 왜도, 첨도 상관계수를 포함하는 문항분석을 실시하고 신뢰도분석을 통해 Cronbach's α 값을 확인하였다. 또한 구인 타당도 검증을 위해 상관분석(correlation analysis), 탐색적 요인분석(EFA: exploratory factor analysis), 확인적 요인분석(CFA: confirmatory factor analysis)을 실시하였다. 탐색적 요인분석의 요인 추출방법은 주성분분석법(principal component)으로 하였고, 요인의 회전방법은 요인간의 상관성이 검증되어 사각회전을 적용하여 분석하였다. 요인은 설문지의 이론적 구조를 고려하여 요인의 수를 6개로 설정하였고 각 문항이 설정된 하위요인에 어떠한 구조로 형성되는지를 확인하였다.

척도에 대한 검증 연구에서는 각각의 연구 분석에서

표 3. 여가만족척도의 하위요인과 조작적 정의

원어 요인	번안된 요인	조작적 정의
Psychological	심리적	자유, 즐거움, 관여(몰입), 지적인 도전등과 같은 심리적 이득
Educational	교육적	지적인 자극, 자기자신과 자기주변(환경, 상황)에 대해 배우는 것을 돕는 것
Social	사회적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들에 대한 보상
Relaxation	긴장이완	삶의 스트레스와 부담(압박)에 대한 완화
Physiological	신체적	체력을 발전시키는 것, 건강유지, 체중조절 그리고 그 외에 삶의 건강하게 잘 살 수 있도록 (촉진) 하는 것
Aesthetic	심미적	심미적인 보상들, 그들을 사로잡는 것들: 그들의 여가활동에 즐거움, 즐거운, 흥미, 아름다움을 주는 것, 일반적으로 디자인이 잘 되어 있어서 그들의 여가활동을 사로잡는 매력이 있는 것

서로 다른 연구대상을 이용함으로써 분석결과에 대한 신뢰도와 타당도를 올바르게 도출하고 해석할 수 있다 [15].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먼저 문항분석과 탐색적 요인분석 그리고 신뢰도 분석을 위해 290개의 대학생 설문자료를 분석에 이용하였고, 확인적 요인분석에서는 225개의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자료를 분석에 이용하였다. 특히, 요인구조의 적합성을 검증하기 위해 확인적 요인분석을 적용할 경우 연구 대상자의 수를 결정하는데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며 요인구조에 제시되는 모든 평가된 변수개수의 10배-20배의 샘플자료를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15]. 따라서 본 연구에서 사용된 자료의 사례수는 적절하다고 평가할 수 있다.

III. 결과

1. 척도의 번안과 조작적 정의의 재검토

여가만족 척도의 타당성을 검증하는 첫 번째 단계로 여가만족척도의 원문항을 번안하고 역번안하는 과정을 수행하였다. 보다 타당한 번역을 위해 여가만족에 대한

표 4. 여가만족 척도의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

	문항	요인1	요인2	요인3	요인4	요인5	요인6
요인1: 심리적 (Psychological)	만족2	.767	.044	.109	.004	.163	.073
	만족3	.704	.147	.009	-.062	.169	.131
	만족1	.644	.259	.051	.087	-.210	.061
	만족4	.554	-.195	-.098	.218	.217	.242
요인2: 긴장이완 (Relaxation)	만족14	.048	.869	-.029	.031	.041	-.053
	만족13	-.140	.830	.105	.048	-.027	.087
	만족15	.095	.817	-.014	-.048	.108	.094
	만족16	.231	.579	-.090	.106	-.026	.013
요인3: 심미적 (Aesthetic)	만족23	.018	-.112	.927	.021	-.041	.031
	만족24	-.093	.032	.881	.014	-.093	.013
	만족22	.208	-.041	.775	.066	.065	-.016
	만족21	-.065	.114	.637	-.062	.181	.064
요인4: 사회적 (Social)	만족9	-.095	-.022	-.016	.917	.009	.035
	만족10	-.012	.064	-.019	.871	.008	.002
	만족11	.243	.027	.106	.598	.138	-.063
	만족12	.141	.162	.197	.429	.041	.014
요인5: 신체적 (Psychological)	만족18	.038	-.064	-.032	.037	.926	-.009
	만족20	-.019	.032	.015	.003	.914	.029
	만족19	-.049	.191	.073	.036	.810	-.067
	만족17	.092	-.089	.013	.028	.794	.120
요인6: 교육적 (Educational)	만족6	.047	.017	.063	-.018	-.012	.781
	만족5	.049	.018	.005	-.008	-.064	.776
	만족7	.033	.064	.060	-.063	.166	.747
	만족8	-.091	.015	-.044	.464	.015	.568
고유값		8.626	2.455	2.251	1.642	1.322	1.039
분산(%)		35.944	10.228	9.380	6.841	5.507	3.912
누적(%)		35.944	46.172	55.551	62.392	67.899	71.811
Cronbach's a		.917	.847	.849	.806	.800	.842

다수의 연구를 수행한 바 있는 여가학 전문가가 문항을 번안과 역번안 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일차적으로 여가만족척도의 24개 문항이 번안되었다. 일차적으로 번안된 문항은 여가학전문가들이 내용을 검토하였고 이를 통해 각 문항을 수정 보완 하였다. 최종적으로 번안된 여가만족척도의 24개 문항은 [표 2]에서 보는 바와 같다.

또한 여가 및 레크리에이션분야의 박사 및 교수 5인으로 구성된 여가학 전문가 집단은 Beard와 Ragheb[9]이 여가만족척도를 개발한 논문에서 제시되어 있는 각 하위요인의 조작적 정의를 고려하여 6개의 하위요인 명칭을 번역하고 전문가 회의를 거쳐 최종적으로 요인의 명칭을 결정하였다. 최종적으로 번역된 여가만족척도의 6개 하위요인 명칭은 심리적(Psychological), 교육적(Educational), 사회적(Social), 긴장이완(Relaxation), 신체적(Physiological), 심미적(Aesthetic) 이었다. 번안된 요인과 각 요인의 조작적 정의는 [표 3]에서 보는 바와 같다.

2. 문항분석과 탐색적 요인분석

여가만족척도 24문항에 대한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 KMO(Kaiser-Meyer-Olkin Measure)는 .889, Bartlett의 구상성 검증 결과는 $p < .001$ 로 수집된 자료가 요인분석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23].

탐색적 요인분석결과 [표 4]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하위요인별로 4개의 문항이 묶이는 것으로 나타났고 각 문항의 요인 부하량과 고유값 그리고 분산이 적절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심리적’요인에서는 각 요인의 부하량이 .554-.767이었고 고유값은 8.626이었으며 35.94%의 변량을 설명하고 있었다. ‘긴장이완’요인은 각 요인의 부하량이 .579-.869였고 고유값은 2.455였으며 10.22%의 설명변량을 가지고 있었다. ‘심미적’요인은 각 요인의 부하량이 .637-.927이었고 고유값은 2.251이었으며 9.38%의 변량을 설명하고 있었다. ‘사회적’요인은 각 요인의 부하량이 .429-.917이었고 1.642의 고유값을 가지면서 6.841의 설명변량을 가지고 있었다. ‘신체적’요인은 각 요인의 부하량이 .794-.926이었고 고유값은 1.322였으며 5.50%의 설명량을 가지고 있었다. 마

지막으로 ‘교육적’요인의 경우 각 요인의 부하량이 .568-.781이었고 1.03의 고유값을 가지면서 3.91%의 변량의 설명하고 있었다. 여가만족척도의 전체 설명변량은 71.81%인 것으로 나타났다. 척도의 신뢰도 검증 결과 각 요인의 신뢰도 계수(Cronbach’s α)가 .806-.917의 분포를 나타내고 있어 여가만족척도는 양호한 신뢰도를 보이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표 5. 여가만족 척도의 문항분석결과

	문항	M(SD)	왜도	첨도	VIF
요인1: 신체적	문항18	3.56(1.52)	.601	-1.118	4.432
	문항20	3.65(1.36)	-.662	-.794	3.884
	문항17	3.42(1.43)	-.387	-1.130	2.989
	문항19	3.58(1.30)	-.530	-.804	2.218
요인2: 긴장이완	문항14	4.33(.90)	-1.591	2.888	2.626
	문항15	4.20(.98)	-1.450	2.441	2.681
	문항13	4.08(.91)	-.938	.962	1.946
	문항16	4.20(.99)	-1.326	1.589	1.493
요인3: 심미적	문항23	3.12(1.14)	.034	-.562	2.819
	문항24	3.18(1.10)	.046	-.518	2.219
	문항22	3.40(1.11)	-.160	-.642	2.032
	문항21	3.77(1.01)	-.664	.318	1.498
요인4: 사회적	문항9	3.86(1.16)	-.841	.043	2.275
	문항10	4.14(1.05)	-1.20	.992	2.612
	문항11	3.98(1.00)	-.968	.764	1.674
요인5: 교육적	문항12	3.72(1.04)	-.443	-.313	1.314
	문항6	3.63(1.11)	-.459	-.318	1.751
	문항5	3.60(1.01)	-.640	.308	1.464
	문항7	3.72(1.05)	-.603	.029	1.984
요인6: 심리적	문항8	3.82(1.04)	-.664	.048	1.574
	문항2	3.96(.96)	-.655	.205	3.106
	문항3	4.01(.99)	-.789	.217	2.766
	문항1	4.26(.87)	-1.06	.891	1.544
	문항4	3.70(1.12)	-.655	-.472	1.797

또한 척도의 타당도를 확보하기 위해 평균, 표준편차, 왜도, 첨도 그리고 분산팽창지수(VIF: variation inflation

factor)등을 포함하는 문항분석을 실시하였고 그 결과는 [표 5]에서 보는 바와 같다.

각 문항의 평균은 3.12 에서 4.33 사이의 범위에서, 표준편차는 .87 에서 1.52 사이에서 분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왜도(skewness)와 첨도(kurtosis)를 이용하여 자료의 정규성을 확인했다. 왜도와 첨도를 통한 정규성 검증의 기준은 완화된 기준을 적용했을 경우 왜도의 절대값은 2보다 작고, 첨도의 절대값은 7보다 작아야 자료의 정규성이 확보되었다고 판단하였다[19]. 따라서 여가만족척도의 모든 문항은 적절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문항의 다중공선성을 확인하기 위해 분산팽창지수(VIF)를 확인하였다. Myers[25]는 만약 VIF의 값이 10이상이라면 다중공선성을 의심해 보아야 한다고 하였다. 분석결과 각 문항의 분산팽창지수(VIF)는 1.314-4.432에 존재하여 다중공선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여가만족척도의 하위문항간의 상관관계분석을 실시한 결과 [표 6]에서 보는 바와 같이 .252-.618사이에 상관계수를 보였다.

표 6. 여가만족 척도의 하위요인간 상관분석 결과

	A	B	C	D	E	F
심리적(A)	1					
교육적(B)	.618**	1				
사회적(C)	.556**	.551**	1			
신체적(D)	.517**	.434**	.414**	1		
심미적(E)	.276**	.351**	.305**	.336**	1	
긴장이완(F)	.517**	.401**	.456**	.252**	.270**	1

* p<.05, ** p<.01, *** p<.001

3. 확인적 요인분석

확인적 요인분석은 척도 하위요인의 구조적 타당성과 각 문항이 하위요인을 얼마나 잘 측정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과정이다[1]. 확인적 요인분석에서 요인구조에 대한 적합성을 평가하는 기준은 아주 다양하다. 본 연구에서는 카이자승, Q값, 증분적합지수(IFI: Incremental Fit Index), 비교부합지수(CFI: Comparative Fit Index), 근사원소평균자승오차(RMSEA: Root Mean Square of Approximation)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모형의 적합

성 수용여부를 판단하였다. 여기서 증분적합지수(IFI)는 표본의 크기에 따른 영향을 방지하기 위한 지수로 Bollen[10][11]에 의해 제안되었다.

탐색적 요인분석과 문항분석 그리고 요인간 상관분석 등에 의해 탐색된 6개요인 24개문항의 구조적합성을 검증한 결과는 [표 7-9]과 같다.

표 7. 여가만족척도의 확인적요인분석

			Estimate(s)*	S.E.	C.R.
문항4	<---	심리적	.545		
문항3	<---	심리적	.848	.156	8.522***
문항2	<---	심리적	.884	.145	8.678***
문항1	<---	심리적	.774	.128	8.144***
문항8	<---	교육적	.739		
문항7	<---	교육적	.827	.090	11.928***
문항6	<---	교육적	.809	.094	11.684***
문항5	<---	교육적	.761	.089	10.999***
문항12	<---	사회적	.727		
문항11	<---	사회적	.611	.084	8.923***
문항10	<---	사회적	.939	.092	13.429***
문항9	<---	사회적	.829	.090	12.235***
문항16	<---	긴장이완	.616		
문항15	<---	긴장이완	.768	.131	9.217***
문항14	<---	긴장이완	.905	.134	10.146***
문항13	<---	긴장이완	.798	.142	9.465***
문항20	<---	신체적	.877		
문항19	<---	신체적	.879	.056	18.619***
문항18	<---	신체적	.949	.058	21.670***
문항17	<---	신체적	.803	.065	15.649***
문항24	<---	심미적	.591		
문항23	<---	심미적	.812	.165	8.703***
문항22	<---	심미적	.849	.154	8.841***
문항21	<---	심미적	.626	.134	7.393***

* standard estimate

*** p<.001

먼저,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 모든 경로의 검정통계량(CR)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p<.01). 또한 6개 요인으로 구성된 여가만족 척도의 적합도는 [표

8]에서 보는 바와 같이 $\chi^2=546.533(df=237, p<.001)$ 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아서 전체 변량을 적절히 대변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χ^2 검증의 경우 너무 엄격하여 표본 크기의 영향에 민감하며 표본이 커질수록 영가설이 기각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단점이 있어 중요하게 해석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다 [22]. 따라서 다른 확인적 요인분석의 적합도 지수를 검토한 결과 Q=2.306, CFI=.912, IFI=.913, RMSEA=.076으로 일반적으로 받아들일만한 수준의 적합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8. 모형의 적합도 지수

계수	χ^2	df	Q	P	CFI	IFI	RMSEA
측정값	546.533	237	2.306	<.001	.912	.913	.076
판정 기준				.05이상	.90이상	.90이상	.08이하
판정				우수	우수	우수	양호

그리고 [표 9]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하위요인 간 추정된 상관계수가 0.9를 넘는 요인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 최종적으로 변안된 여가만족척도는 타당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표 9. 여가만족 척도의 하위요인 간 상관관계 추정치표

요인		상관 추정치
심리적	<—> 교육적	.652
심리적	<—> 사회적	.547
심리적	<—> 긴장이완	.736
심리적	<—> 신체적	.561
심리적	<—> 심미적	.466
교육적	<—> 사회적	.644
교육적	<—> 긴장이완	.451
교육적	<—> 신체적	.272
교육적	<—> 심미적	.454
사회적	<—> 긴장이완	.515
긴장이완	<—> 신체적	.464
신체적	<—> 심미적	.426
사회적	<—> 신체적	.410
사회적	<—> 심미적	.456
긴장이완	<—> 심미적	.457

4. 여가만족과 삶의 질과의 관계분석

1) 투입 변인들 간의 상관관계

상관관계분석을 실시하여 Pearson의 상관계수로 여가만족과 삶의 질의 투입변인들 간의 상관성을 확인한 결과 여가만족의 모든 변인과 삶의 질 간에 $p<.01$ 수준에서 유의한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10]. 또한 모든 변인들의 상관계수 값이 .618이하로 다중공선성(collinearity)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10. 투입 변인들 간의 상관관계

변인	심리적	교육적	사회적	신체적	심미적	긴장이완	삶의 질
심리적	1						
교육적	.618**	1					
사회적	.556**	.551**	1				
신체적	.517**	.434**	.414**	1			
심미적	.276**	.351**	.305**	.336**	1		
긴장이완	.517**	.401**	.456**	.252**	.270**	1	
삶의 질	.334**	.270**	.239**	.178**	.211**	.329**	1

** P<.01

2) 여가만족이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

표 11. 여가만족이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

종속변인	독립변인	B	S.E.	β	t
삶의 질	심리적	.235	.102	.186	2.296*
	교육적	.068	.093	.055	.739
	사회적	-.003	.089	-.003	-.036
	신체적	-.018	.056	-.021	-.321
	심미적	.112	.070	.097	1.597
	긴장이완	.255	.089	.191	2.870**
R=.395, R ² =.156, F=8.708***					

* P<.05, ** P<.01, *** P<.001

상관관계를 통해 밝혀진 여가만족과 삶의 질의 관계를 좀 더 명확한 관계를 검증하기 위하여 다중회귀 분석을 실시하였다. [표 1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여가만족이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의 회귀모형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F=8.708, p<.001$)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종속변인에 대한 독립변인의 영향력은 15.6% ($R^2=.156$)로 나타났다. 세부적으로는 심리적 여가만족

과 긴장이완 여가만족 요인이 삶의 질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IV. 논의 및 결론

21세기의 여가활용은 삶의 질 향상, 여유 있는 삶의 영위, 스트레스 해소, 건강증진, 자아성장 등의 개인의 삶을 적극적으로 개발해나가고 인생의 보람을 충족시킬 수 있는 필수적인 활동으로 인식의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다[8]. 이렇듯 다양한 여가활동에 의한 사회적, 심리적, 신체적 이득을 왜곡되지 않게 증명하기 위해서는 올바른 척도의 사용이 매우 중요하다.

본 연구는 여가만족척도의 타당도와 신뢰도를 검증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여가만족척도는 Beard와 Ragheb[9]에 의해 처음으로 개발된 이후 국내에서는 이종길[7]의 연구를 시작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약 20여 년간 사용되고 있는 여가만족척도의 한국 내 적용에 대한 타당성 연구는 이루어진 바 없다.

먼저, 이 연구에서는 조작적 정의를 고려한 척도문항과 요인의 번역과 역번역을 수행하고 전문가의 검토를 거쳐 척도의 내용타당도를 확보하였다. 이에 따라 24개 문항이 새롭게 번역되었고 6개로 구성된 각 요인의 명칭은 심리적, 교육적, 사회적, 긴장이완, 심미적 요인으로 명명되었다.

기존의 연구에서는 이종길[7]이 사용한 요인인 심리적, 교육적, 사회적, 휴식적, 환경적 요인을 지속적으로 사용해 왔다. 그러나 본 연구결과 휴식적 요인은 긴장이완 요인으로 환경적 요인은 심미적 요인으로 새롭게 명명되었다.

긴장이완 요인은 원어로 'Relaxation'으로 사전적 의미는 기분전환, 오락, 즐거움, 이완, 완화 등의 의미를 가진다. Beard와 Ragheb[9]은 'Relaxation'을 '삶의 스트레스와 부담, 압박에 대한 완화'라고 조작적으로 정의하였다. 또한 Beard와 Ragheb[9]이 개발당시 고려한 'Relaxation'의 이론적 선행연구인 Patrick[20]의 연구에 따르면 놀이와 스포츠가 일상생활에서 오는 긴장을 풀

어주어 원기를 회복시켜준다고 보고한바 있다. 따라서 단순히 '휴식적'이라는 단어는 본래의 조작적 정의를 올바르게 반영하지 못하는 단어라는 점을 고려하여 여가학전문가의 회의를 거쳐 최종적으로 '긴장이완'으로 명명되었다.

그리고 심미적 요인은 원어로 'Aesthetic'이며 사전적 의미는 미(美)의, 미학의, 심미적인 등의 의미가 있다. Beard와 Ragheb[9]은 'Aesthetic'을 심미적인 보상들, 그들을 사로잡는 것들: 그들의 여가활동에 즐거움, 즐거운, 흥미, 아름다움을 주는 것, 일반적으로 디자인이 잘 되어 있어서 그들의 여가활동을 사로잡는 매력이 있는 것 이라고 조작적 정의하였다. 또한 'Aesthetic'의 이론적 배경이 되는 Rutledge[21]의 연구에서 뛰어난 미적 상태는 모든 대상물이 시각의 영역 내에서 상호보완적인 자질을 보여주도록 만들어진 상태라고 하면서 심미적 요인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따라서 'Aesthetic'요인은 환경적 요인으로 명명하면 그 의미가 축소된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에 따라 '심미적'요인으로 명명되었다.

척도를 개발하거나 변안 할 때 개념검토가 매우 중요한데 이는 측정도구를 통하여 측정하고자 하는 특성 (concept construct)에 대한 내용과 경계를 명확히 해야 한다. 또한 동시에 측정도구의 사용목적, 구인을 이루는 요인도출, 요인들의 중요도 결정 등의 검토 작업이 이루어져야 한다[6]. 따라서 외국에서 개발된 척도를 한국어 관으로 변안하여 타당성을 검토할 때 척도의 하위요인에 대한 조작적 정의를 함께 파악하여 제시해주는 것은 매우 중요한 과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요인의 사전적 의미와 조작적 정의 그리고 이론적 배경을 바탕으로 설정한 요인의 명칭은 매우 타당하며 추후 연구에서는 새롭게 명명된 요인으로 연구를 수행해야 할 것이다.

한편, 변안된 척도의 구인타당도를 검증하기 위해 설문조사를 하여 문항분석, 확인적 요인분석, 탐색적 요인분석, 신뢰도 분석 등을 수행하였다. 그 결과 모든 통계적 분석에서 여가만족척도가 구조적으로 타당한 것으로 나타났고, 각 하위의 신뢰도계수가 .806-.917로 나타나 신뢰성이 확보되었다. 따라서 새롭게 변안된 6개요인 24개문항의 여가만족척도의 타당도가 검증되었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대학생그룹과 일반 성인 그룹을 각

각 분석에 이용하여 결과를 도출하였고, 이는 변안된 여가만족척도가 일반적인 성인들에게 보편적으로 사용 가능하도록 타당화 되었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 중요한 것은, 척도의 타당도는 측정도구의 고유속성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자료해석의 적절성, 적합성 그리고 의미성의 정도를 의미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를 사용할 때 반드시 각 요인의 조작적 정의를 고려하여 분석결과를 해석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다.

여가만족척도의 타당도 검증 이후 적용을 위하여 삶의 질과의 인과관계를 살펴 본 결과 '여가만족이 삶의 질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연구들[28-30]과 일치된 결과를 보였다. 이는 새롭게 구성된 여가만족척도의 준거타당성이 확보되었음을 의미한다. 또한 심리적 만족과 긴장이완 만족요인만이 삶의 질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점은 또 다른 의미를 갖는다. 여가만족의 모든 하위 요인이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는 점에 주목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여가현장에서 주요 영향 요인에 초점을 둔 프로그램 구성이 요구되며 보다 명확한 관계 입증을 위하여 추후연구가 요구된다.

이 연구는 여가만족척도를 변안하고 타당성검증을 하였으며, 삶의 질과의 관계를 검증하였다. 이를 통해 향후 여가학 연구 분야뿐만 아니라 사회복지, 마케팅, 사회학 등 다양한 분야에서 보다 타당한 연구를 수행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아울러, 여가의 의미는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사회문화적 변화에 따라 변화하는 개념이므로 여가만족척도도 이러한 변화를 반영할 수 있는 방안을 고안하고 연구하는 것이 필요하다.

참 고 문 헌

[1] 김계수, Amos 구조방정식 모형분석, (주)데이터솔루션, 2002.
 [2] 김병준, “체육학 연구에서 질문지 번역과 타당도 제고를 위한 절차”, 한국스포츠심리학회지, 제14권, 제1호, pp.13-26, 2003.

[3] 김영재, “한국형 여가만족척도 개발과 타당화 검증”, 한국체육학회지, 제43권, 제1호, pp.291-299, 2004.
 [4] 김영재, “한국형 여가만족척도의 다집단(Multi-Group)분석과 잠재평균”, 한국체육학회지, 제48권, 제5호, pp.55-264, 2009.
 [5] 엄한주, 스포츠 심리학 연구법, 보경문화사, 1995.
 [6] 오수학, 김병준, “심리측정도구의 타당도에 관한 새로운 개념과 검증”, 한국스포츠심리학회지, 제13권, 제3호, pp.111-126, 2002.
 [7] 이종길, “사회체육활동과 생활만족의 관계”, 미간행 박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대학원, 1992.
 [8] 정덕조, 권용일, 이연주, “청소년의 여가활동 참가가 불안 및 우울에 미치는 영향”, 여가레크리에이션학회지, 제32권, 제4호, pp.145-154, 2008.
 [9] J. G. Beard and M. G. Ragheb, “Measuring leisure satisfaction,” Journal of Leisure Research, Vol.12, pp.20-33, 1980.
 [10] K. A. Bollen, “Sample Size and Bentler and Bonett’s Nonnormed Fit Index,” Psychometrika, Vol.51, pp.375-387, 1986.
 [11] K. A. Bollen, Structural Equations with Latent Variables: Wiley Series in Probability and Mathematical Statistics, Wiley, 1989.
 [12] C. Brightbill, Man and leisure: a philosophy of recreation, Prentice-Hall, 1961.
 [13] C. A. Bucher, Foundations of physical education, Mosby Co., 1972.
 [14] J. Dumazedier, Sociology of leisure, Elsevier, 1974.
 [15] R. B. Kline, Principle and practice of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The Guilford Press, 2005.
 [16] R. Kraus, Recreation and leisure in modern society, Appleton-Century-Crofts, 1971.
 [17] A. Maslow, Toward a psychology of being, D. Van Nostrand, 1962.
 [18] J. Neulinger, The psychology of leisure: research approaches to the study of leisure,

Charles C. Thomas, 1975.

[19] I. H. Park, Issues and concurrent solutions in SEM(CFA), Presented at the Conference of North American Society for Sport Management, Regin: Canada, 2005.

[20] G. Patrick, The Psychology of relaxation, Houghton-Mifflin, 1916.

[21] A. Rutledge, Anatomy of a park: the essentials of recreation are planning and design, McGraw-Hill Book Company, 1971.

[22] R. E. Schumacker and R. G. Lomax, A beginner's guide to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LEA, 1996.

[23] B. G. Tabachnick and L. S. Fidell, Using Multivariate Analysis, Harper & Row, 2001.

[24] W. Walshe, Leisure with personality, Epperson et al., op. cit, 1977.

[25] R. H. Myers, Classical and modern regression with applications, PWS-Kent Publishing Company, 1990.

[26] E. Diener, R. A. Emmons, R. J. Larsen and S. Griffin, "The satisfaction with life scale," Journal of personality assessment, Vol.49, pp.71-76, 1985.

[27] 구재선, "성격, 효능감, 생활경험과 주관적 행복: 토착 심리학적 접근", 미간행 박사학위논문, 중앙대학교 대학원, 2005.

[28] M. K. Ragheb and C. A. Griffith, "The contribution of leisure participation and leisure satisfaction to life satisfaction of older persons," Journal of Leisure Research, Vol.14, pp.295-306, 1982.

[29] 임변장, 정영린, "여가활동 유형과 여가만족의 관계", 한국체육학회지, 제34권, 제3호, pp.56-69, 1995.

[30] 박래영, 김백운, "노인여성의 댄스스포츠 참여동기, 여가만족 및 삶의 질과의 관계", 한국여성체육학회지, 제23권, 제4호, pp.133-146, 2009.

저 자 소 개

김 미 량(Mi-Lyang Kim)

정회원



- 2008년 2월 : 서울대학교 체육교육과 졸업(체육학박사)
- 2008년 3월 ~ 현재 : 경운대학교 전임강사

<관심분야> : 여가심리행동, 연구방법론, 레저스포츠

이 연 주(Yeon-Ju Lee)

정회원



- 2006년 8월 : 서울대학교 체육교육과 졸업(체육학 박사)
- 2010년 10월 ~ 현재 : 서울대학교, 한림대학교, 인하대학교, 경인교육대학교 시간강사

<관심분야> : 여가·레크리에이션, 스포츠사회학

황 선 환(Sunhwan Hwang)

정회원



- 2008년 8월 : 미국 조지아대학교 여가학 박사졸업
- 2010년 10월 ~ 현재 : 서울시립대학교 생활체육정보학과 조교수

<관심분야> : 여가사회학, 여가심리학, 여가경영, 청소년 캠프